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2190억 투입

도, 영농환경 개선 위해 수리시설 612억원·배수시설 645억원 등 15개 사업 394지구 추진

전북도는 올해 총 2,190억원을 투입해 15개 사업 394지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해 '농민과 농업과 농촌이 모두 즐거운 삼라농정'의 기본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간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를 극복하고 현대화된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설물 노후 등으로 용·배수 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개·보수에 612억원을 투자, 재해위험과 영농불편 해소를 도모한다.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배수개선사업에 645억원을 투입해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및 다양한 작물 재배 여건을 조성한다.

상습 가뭄발생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할 통해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452억원을 투자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편의 영농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여름철 마른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한 만일의 가뭄발생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등 가뭄대응



군부대 위문방문 격려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전주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육군 제965부대 2대대를 방문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금을 전달하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예산 42억원 등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계화 영농,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등 선진화된 농업시스템의 구축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기 확보된 농업기반 정비 분야 국가예산 2,126억원 외 신

규사업 반영 등을 통한 추가 국가 예산을 확보해 농업용수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9월 폭염 및 작은 강우로 도내 일부 지역에 가뭄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나, 올 1월 초 현재 도내 저수지의 저수량은 4억8,800만톤

(저수량 71.0%)로 평년 저수량 5억 1,500만톤(저수량 75.0%) 대비 94.8%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앙기 영농준수까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농업용수 확보대책 지속추진과 가뭄극복 3대운동(저수, 절수, 용수개발) 전개 등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 '고부가 식품개발 지원사업' 과제별 협약 오늘 진행

도는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고부가식품개발 지원사업) 과제별 협약을 31일 진행한다.

'고부가 식품개발 지원사업'은 도와 도내 시군이 지원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운영하며, 과제별 주관기업과 산학연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는 도와 12개 시군에 6억6,000만 원을 지원해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곤충 산식 개발, 저온농축 토종무늬 개발, 포두부 닭가슴살 소시지 개발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해당과제는 오는 10월까지 연구개발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를 통해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개발 이후 4천만원으로 진행되는 후속사업인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화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자 매년 급등세

도, 지난해 이용자 2만774명으로 전년대비 26.5% 증가... 이용 편리해져

조상명인의 땅을 조회해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 이용자는 2만774명(3만218필지, 31.8 km²)으로 전년대비 26.5%(약 4500명) 증가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인의 토지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사유는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이 름만 있으면 조상명인의 땅 조회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이 있는 직계존비속만 신청가능했던 것이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방계혈족도 신청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도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오모씨(46세)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결과 조부의 토지로 추정되는 토지가 총 8필지로 1,448㎡로 확인되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

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아 볼 수 있는 출생 및 사망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최근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토지, 국민연금 등 상속재산에 대해 통합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친구·가족과

개최지 결정 7개월 앞으로... 유치시 브랜드 상승 효과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 결정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등 관계 기관 유치위원회는 주요 투표권자가 참가하는 대륙별 총회를 비롯해 전략상 꼭 필요한 개별 나라들의 스카우트연맹(NSO) 방문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공유 및 네트워크 공조 체제를 약속하는 등 세계 스카우트의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올해는 그간 숨가쁘게 전개된 유치활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등 더 분주히 움직일 계획이다.

그간 잼버리 개최 때마다 문제되었던 안전과 통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Wifi를 통해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잼버리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의 생태·자연환경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국의 강점인 IT를 활용한 스마트 잼

버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대륙별 총회, 개별 NSO 방문을 통해 새만금 유치 타당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가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강호인 폴란드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폴란드는 이미 2011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의 유치위원회가 가동중이고, 전·현직 대통령이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한국스카우트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도민, 관계기관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회가 유치되면 경제적 유발효과는 물론이고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 신공항' 비상 위한 날개짓 시작

'항공수요 조사연구' 용역 지난해 12월 착수 올해 마무리 예정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비상을 위한 날개짓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도내 항공수요 예측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 타당성 및 신속추진 담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용역내용으로는 전북지역 항공수요 영향요인 분석, 이용객 특성 세부조사, 전북지역 항공수요 예측, 새만금 공항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 및 기존계획과의 비교검토, 새만금 공항 후보지 여건에 대한 조사 등이며 오는 1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역 마무리 이후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지난해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사업추진 근거가 확보됐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새만금 한·중 경제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대기업 투자활성화 촉진, 2023 세계잼버리대회 등 대

규모 국제행사 및 해외관광객 유치 등 전북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개인정보 추가 유출차단 및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단계적 대응절차를 명시하고, 사고 발생시 대응팀을 즉각 구성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주체에게 유출방지 방법과 표준 통지문안을 추가하고, 고객 민원 대응 조치 방법과 개인정보 유출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및 유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관제요원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보안관제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